

농촌부인의 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 경 미[†]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Life Satisfaction of Rural Wiv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Kyeong Mi, Han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family life, farm work, and leisure satisfaction of rural wives in Chonnam district.

300 farmhouses were selected by stratified sampling from 20 Myon in Chonnam district, 283 wives were interviewed using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 : 1) The level of wives's value perception of agriculture was low.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family life was higher than farm and leisure life. The farm satisfaction is the lowest.

2) family environment variables(such as age, education, children number, yearly income, family type, the number of year of house built), variables connected with farm life(major type of agriculture, value perception of agriculture, underdeveloped cause, living period in farm), and variables connected with time us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life satisfaction. To promote the satisfaction of rural wives variou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orean J Human Ecology 1(1): 66-80, 1998*)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rural wives.

1. 서 론

우리나라 전체 농가에서 여성인구가 더 많다. 1982년 이후 농가인구중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더 많아 1992년의 경우 남성이 2,762천명에 여성은 2,944천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비율로는 6.6%, 182천명이 더 많았다(농림수산부 각년도).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B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 530-1325, Fax : 062-530-1329
E-mail :

지만 특히 농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더욱 증가하여 1991년 62%로 증가하였다. 농림어업 취업자에서 여성의 연령을 살펴보면 1991년의 경우 50대가 35.4%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25%, 40대가 22%로 나타나는 등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각년도). 고령화된 농촌의 여성은 농촌 남성들보다 노동부담이 크고 농기계사용율이 낮은 작업에 많이 참여하여 작업자세도 열악하다. 이러한 주된 농업노동력의 역할에 가사일도 주부가 80%를 전담하고 있어(한경미 1997) 농촌부인의 노동과 중은 심각하며 복지수준도 도시여성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2.5배나 높는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은 예방이나 악화방지가 가능한 질병들인데도 대부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보건복지부 1997). 이는 농민들이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도시주민들 보다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노부모와 동거하고 부양하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으나(통계청 1995) 노인부양이나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회적인 지원체제도 미비하고, 농산물 저가정책으로 농촌의 경제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시장재화나 용역으로 노동을 대체할 경제능력이 없기때문에 노동의 강화와 심리적 부담, 건강상의 훼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이 과수와 채소, 비닐하우스같은 시설작물 재배가 많아짐으로써 농한기에도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 한경미(1997)의 1979년 이후로 1995년까지 농업노동시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번기의 노동시간은 적은 비율로 감소한 반면, 농한기의 노동시간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농번기와 농한기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이 구분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촌생활의 질 저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다각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농촌의 주요 노동력이 되는 부인의 생활만족 수준이 생활영역별로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농촌가정에서 의식주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도시에 비하면 크게 낙후된 수준이고, 지역사회와 가정환경의 실제 조건보다 농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더 낮다(최은숙 등 1992; 김인숙 등 1993). 1991년 직종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근로시간에 대해 8.3%,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6.2%만 만족하고 있어 전직종 중에서 가장 만족수준이 낮았다. 직업의 장래성과 임금, 직무만족도에서도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생산노무직보다 낮은 최하위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1994).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조완규 1993),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정학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은 도시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가족에 대한 연구는 몇 편되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농촌주민의 생활만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복지체제에서 취약한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담과 생활고로 농촌의 남성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부인의 생활만족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농촌부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촌부인의 생활만족수준

1991년 직종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근로시간에 대해 8.3%,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6.2%만 만족하고 있어 전직종 중에서 가장 만족수준이 낮았다. 직업의 장래성과 임금, 직무만족도에서도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생산노무직보다 낮은 최하위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1994). 객관적 변수보다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조완규 1993), 지난 수십년간 공업위주, 도시위주의 성장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게 된 농민들은 가치관이 전도되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며,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는 도시주부보다 낮고(안옥희 등 1994),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보다 유의하게 더 낮다(서광희 등 1993). 과중한 노동으로 바쁘고 힘든 농촌주부가 가정생활에서 불만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수입의 불안정성과 가사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김혜경 등 1990). 최근 연구(김태호 1994)에서도 농촌 여성들은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적 역할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44.7%). 그 다음은 편의시설 부족(21.6%),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애로점으로 인식하였다.

김인숙 등의 연구(1993)에 의하면 객관적인 농가의 여가생활 상태는 다른 영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인 생활만족 수준에서도 가족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김동일 등(1982)이 농촌의 생활의 질을 측정된 결과, 대다수는 의료시설을 제외한 환경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내지 상호작용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주택이나 농사일, 여가활동과 휴식 또는 농가소득과 같은 개인생활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저소득 농가의 불만수준이 높았다. 최은숙 등(1992)은 생활의 질을 각 가구의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만족도, 그리고 살고 있는 마을의 객관적 생활환경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각각 측정된 다음 이 4가지 점수의 합을 농촌가족의 총체적인 생활의 질로 분석하였는데 그 수준은 100점 만점에 57.7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평가수준도 지역사회에 대한 것보다 개별가구에 대한 평가수준이 더 낮고, 객관적인 실제 생활조건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만족의 정도는 더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김인숙 등(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986년과 1992년(최은숙 등) 연구를 비교해보면 8개 생활영역에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다.

2. 생활만족과 관련변수

김경동 등(1983)과 이기영(1984)연구에서 연령은 주관적 만족감을 포함한 생활의 질인식에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홍숙자(1990)는 LA 거주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 증가하였고, Campbell(1976)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만족스러웠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생활만족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도시주민이나 외국거주 노인들과 다르게 나타났다. 임정빈 등(1995)은 우리나라 농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30대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하였고, 김인숙 등(1993)도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전남지역 농촌의 부인에게도 연령효과가 이와 동일하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은 생활만족과 생활의 질, 심리적 복지나 만족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최은숙 1981; 최은숙 등 1992; 김인숙 등 1993; 임정빈 등 1995; 이기영 1984; 한경혜 1980; 김경동 등 1983), 결혼만족도와 관련을 본 연구들에서도 교육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김화자 등 1991; 서병숙 등 1983; 옥선화 1987). 그러나 Campbell(1976)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고 하였다.

동거자녀수에 관해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자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김인숙 등 1993; 박민숙 1985; 유영주 1979). 한편 임정빈 등(1988)은 가족수가 6-7명일 때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은 3명일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안옥희 등(1994)은 청송지역 부인의 가사노동만족을 조사하였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 만족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연숙 등(1991)의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다고 하였으며, 그외의 연구들에서도 소득은 가정생활만족도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서광희 등 1993; 안옥희 등 1994; 임정빈 1988; 임정빈 1989; 조미환 1990; 이인수 등 1986; Hayes, Stinnett 1971; Hafstrom, Dunsing 1973; Campbell 1976; Berry, Williams 1988; 김경동 등 1983; 김화자 등 1991; 최은숙 등 1992). 임정빈 등(1995)은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객관적인 화폐소득도 생활만족에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경제문제를 경험하는 정도와 과거와 비교하여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농촌가정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생활만족과 소득은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송병국 1987; 1990)도 있다.

농업에 대한 자긍심도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더 만족도가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가족원간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조완규 1993).

한경미(1995)는 도시에 거주하는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시간관련 변수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많을수록 전체 생활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시간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가정생활만족은 평일수면시간과 시간갈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평일수면시간이 많고 시간갈등이 적을수록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였다. 직업생활만족은 근무시간의 융통성과 시간갈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여가생활만족은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영역보다 더 시간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부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변수(주부연령, 교육수준, 동거자녀수, 연소득, 가족형태, 주택건축년수)와 농촌생활 관련변수(주영농형태,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 농촌이 덜 발전한 이유, 농촌생활년수), 시간변수(수면시간, 식사·세면시간,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 1) 전남지역 농촌부인의 생활만족수준은 어떠하며, 하위영역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 2) 가정환경변수와 농촌생활변수는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시간관련변수는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와 생활시간 기록표(time diary)이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과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은 노동과 여가에 있어서 평일과 휴일이 구분이 도시근로자만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평일 하루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시간표는 하루 24시간을 15분씩 구획한 차트로써 조사대상자가 전날에 사용한 시간내용을 회상한 것을 부인이 직접 기록하거나 조사원이 면접하여 기록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남도 농촌의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대상가구로 하였다. 2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서 1-2개 부락을 선정하여 부락크기가 소촌인 경우는 10가구를, 중촌 이상의 부락에서는 2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다단계 층화표집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3명의 조사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면접으로 조사원이 기록하거나 본인이 기록한 것을 회수하였고, 1997년 2월에 실시하였다.

선정된 300가구에 질문지 300부와 부인의 생활시간 기록표 283부가 회수되어 분석에는 283부가 사용되었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포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관련변수들간의 관계는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독립변수가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GLM의 다중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그리고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결과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1〉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에서 50대 이상은 부인 56.2%, 남편 66.6%나 되었다. 40대 미만의 남편은 10.6%밖에 되지 않아 전남지역 농가노동력의 노령화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국졸이하의 경우가 부인 68.2%, 남편 48.0%로 교육정도가 낮았다. 현재 동거하는 가족수는 2명이 48.4%로 가장 많고, 평균 가족수는 3.07명으로 전국농가 3.23명보다 적은 수이다. 동거하는 자녀나 손자의 평균수는 0.9명이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 이상 가구는 20.1%(1990년 통계청 자료 17.4%)이다. 현재 동거하는 막내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19.9%로 가장 많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년수는 20년 이상이 54.4%로 가장 많고, 농촌에서 생활한 년수도 20년 이상이 7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간총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 53.5%를 차지하였는데, 전국농가의 농외소득을 제외한 농업소득평균(10,469천원)과 비교할 때 더 낮은 수준이다. 대개의 농가에서는 2가지 이상의 농업을 하고 있으나 주된 영농형태로는 논농사가 61.5%로 가장 많으며, 밭이나 과수원 등이 14.8%, 비닐하우스같은 시설작물은 14.5%로 나타났다. 농기계보유수는 1-2대가 55.5%로 가장 많았다. 농가부인이 농기계 사용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잘 다루는가를 살펴보니 전혀 모른다가 47.3%로 가장 많고, 잘 다룬다고 응답한 부인은 16%밖에 되지 않았다.

농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자녀교육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과중한 노동문제(16.8%), 건강문제(15.4%), 노후대책문제(12.9%)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전하게 된 원인으로는 75.2%의 대다수가 정부의 도시위주 정책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농민자신의 내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본 것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농촌 부인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 경향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딸이 농사짓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은가에 긍정적인 답은 6.1%밖에 되지 않고,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하겠냐는 질문에 긍정자는 7.6%에 불과하여, 대부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신농사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19.1%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주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직업으로서 농업이 미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7%에 불과하여 미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3.2% 뿐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농민여론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각 문항별 평균점수를 볼 때 모든 문항이 중간점을 훨씬 밑도는 수준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고, 농업승계의식도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변 수	구 분	빈 도(%)	
부 인 연 령	20~29세	8 (2.8)	동 거 막내자녀 연 령	자녀없음	154 (54.5)	
	30~39세	40 (14.1)		초등학교 이전	18 (6.4)	
	40~49세	76 (26.9)		초등학교	28 (9.9)	
	50~59세	98 (34.6)		중·고등학교	56 (19.9)	
	60세 이상	61 (21.6)		대학교 이상	27 (9.5)	
남 편 연 령	20~29세	1 ()	주 택 건축년수	5년 미만	50 (17.7)	
	30~39세	27 (10.6)		5~10년 미만	32 (11.3)	
	40~49세	58 (22.8)		10~15년 미만	17 (6.0)	
	50~59세	91 (35.6)		15~20년 미만	30 (10.6)	
	60세 이상	79 (31.0)		20년 이상	154 (54.4)	
부 인 교육수준	무학	50 (17.7)	농 촌 생활년수	5년 미만	8 (2.8)	
	국졸	143 (50.5)		5~10년 미만	16 (5.7)	
	중졸	56 (19.8)		10~15년 미만	19 (6.7)	
	고졸	34 (12.0)		15~20년 미만	19 (6.7)	
남 편 교육수준	무학	20 (12.6)	연 간 총소득	20년 이상	221 (78.1)	
	국졸	90 (35.2)		500만원 미만	73 (26.2)	
	중졸	82 (32.0)		500~1000만원	77 (27.6)	
	고졸	57 (22.3)		1000~2000만원	66 (23.7)	
	대졸	7 (2.7)		2000~3000만원	30 (10.8)	
동 거 가족수	1명	8 (2.8)	주 된 영농형태	3000~4000만원	16 (5.6)	
	2명	137 (48.4)		4000만원 이상	17 (6.1)	
	3명	48 (17.0)		논농사	174 (61.5)	
	4명	37 (13.1)		밭농사	42 (14.8)	
	5명	27 (9.5)		시설작물	41 (14.5)	
	6명 이상	26 (9.2)		양축	23 (8.1)	
동 거 자녀수	없음	155 (54.8)	농기계 보유수	기타	3 (1.1)	
	1명	44 (15.5)		없 음	37 (13.1)	
	2명	50 (17.7)		1~2대	157 (55.5)	
	3명	25 (8.8)		3~4대	45 (15.9)	
	4명	9 (3.2)		5~6대	28 (9.9)	
가족 형태	핵 가족	226 (79.9)	부 인 농기계 사용법	7대 이상	16 (5.7)	
	확대가족	57 (20.1)		전혀 모른다	133 (47.3)	
농촌생활 난 제	자녀교육문제	109 (38.8)		농 촌 저발전 이 유	거의 모른다	40 (14.2)
	건강문제	43 (15.4)			조금 모른다	63 (22.5)
	빈곤문제	21 (7.5)	잘 다룬다		45 (16.0)	
	자녀결혼문제	17 (6.1)	정부의 도시		212 (75.2)	
	노후대책문제	36 (12.9)	위주 정책			
	자녀타아문제	7 (2.5)	농민단결력부족		13 (4.6)	
	과중노동문제	47 (16.8)	변화지식부족		43 (15.2)	
		농민능력부족	12 (4.3)			
		농민근면성부족	2 (0.7)			

<표 2>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

문항	전혀 안그렇다	대체로 안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평균
딸이 농사짓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은가?	154(54.8)	74(26.3)	36(12.8)	12(4.3)	5(1.8)	1.71
새 농사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가?	112(39.7)	60(21.3)	56(19.9)	54(15.2)	11(3.9)	2.22
자녀에게 농사일을 물려주겠는가?	159(57.2)	67(24.1)	31(11.2)	16(5.8)	5(1.8)	1.71
농업은 직업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99(35.5)	85(30.5)	65(23.3)	23(8.2)	7(2.5)	2.12
정부정책이 농업실정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131(46.5)	98(34.8)	44(15.6)	8(2.8)	1(0.4)	1.76
정부가 농민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146(51.8)	89(31.6)	41(14.5)	6(2.1)	0(0.0)	1.67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표 3>에 제시되었다. 생활만족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3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여유시간의 양에 대해서는 평균 3.20점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나, 여가의 활용내용에서는 2.81점으로 불만족경향이 높았다. 미곡생산 농가에서는 조사시기가 농한기에 해당하므로 현 여가시간의 양에 대한 만족수준이 다소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업노동시간의 양에 대해서도 불만족한 경향이 강하고(2.44), 농사일에 대한 댓가에서는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편 가정생활이나 가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수로 볼 때 농가주부는 가정생활에는 다소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은 여가생활이며, 농사일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나타내었다. 도시의 취업주부의 만족도 수준과 비교할 때(한경미 1995), 가정생활과 직업생활만족 모두 농촌부인이 더 낮는데 특히 직업생활만족은 농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여가생활만족은 도시주부보다 농촌부인이 약간 높았으나 본 조사 시기가 논농사 위주의 농가에서는 농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생활 영역별 만족도 경향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가족생활	3.29	0.93
가사일	3.17	0.86
계	6.45(3.23)	1.60
농업노동시간양	2.44	0.99
농사일에 대한 댓가	2.17	1.00
계	4.61(2.31)	1.68
현재 여유시간의 양	3.20	0.98
여가활용내용	2.81	0.94
계	6.10(3.01)	1.68
전체	17.03(2.84)	3.76

각 영역별 만족과 전체 생활만족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가정과 농업, 여가생활만족과 전체 생활만족간에는 모두 비슷한 정적상관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도 전체 생활만족과 가정생활만족이 가장 높은 관련을 가져($r=.78$), 농촌부인의 생활만족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여가생활만족($r=.76$), 농업생활만족($r=.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한경미 1995)와 비교해볼 때 취업주부 역시 전체 생활만족에 가장 높은 관련을 가진 것은 가정생활

만족($r=.84$)이었으나, 그 다음으로 관련이 높은 것은 직업생활만족($r=.80$)이고, 여가생활만족($r=.57$)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영역별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문항		가정생활	농업생활	여가생활	전체
가정생활	가족생활	.90	.39	.41	.74
	가사일	.87	.23	.39	.65
	계	1.00	.34	.45	.78
농업생활	농업노동시간의 양	.29	.83	.26	.61
	농사일 댓가	.29	.84	.19	.58
	계	.45	1.00	.26	.72
여가생활	현재여유시간양	.39	.23	.88	.67
	활용내용	.39	.23	.87	.66
	계	.45	.26	1.00	.76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가정환경변수로 채택된 부인연령과 교육수준,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 연간총소득, 가족형태,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년수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와 하위 집단간에 특히 유의한 급간을 지적해주는 다중범위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생활만족에 대한 가족환경변수의 GLM 다중분산분석

독립변수		생활만족도	가족생활만족	농업생활만족	여가생활만족	전체
연령	30대 이하 (48)		6.54	5.23 a	6.02	17.69
	40대 (73)		6.45	4.76 ab	5.99	17.14
	50대 (97)		6.30	4.45 bc	6.01	16.76
	60대 이상 (59)		6.56	4.17 c	6.05	16.78
	F값		2.29	0.35	0.34	0.96
교육	무학 (49)		6.02	3.98 c	6.04	16.04 b
	국졸 (141)		6.54	4.52 bc	5.98	17.01 a
	중졸 (53)		6.52	4.94 ab	6.13	17.60 a
	고졸 이상 (34)		6.47	5.36 a	5.94	17.62 a
	F값		2.27	1.68	0.84	2.05
동거 자녀수	없음 (151)		6.51 a	4.50	6.19 a	17.21 ab
	1명 (43)		6.40 ab	4.77	6.18 a	17.35 a
	2명 (49)		6.69 a	4.76	5.78 ab	17.04 ab
	3명 이상 (34)		5.79 b	4.65	5.35 b	15.79 b
	F값		3.17*	0.57	3.58*	3.51*
연간 소득	50만원 미만 (73)		6.08 b	3.99 c	5.97 ab	15.99 b
	50~100만원 (77)		6.33 ab	4.61 b	5.92 ab	16.86 b
	100~200만원 (65)		6.62 ab	4.70 ab	5.80 b	17.05 b
	200만원 이상 (62)		6.81 a	5.23 a	6.40 a	18.44 a
	F값		3.31*	3.50**	1.50	4.35**
가족 형태	핵가족 (218)		6.57 a	4.72 a	6.16 a	17.40 a
	확대가족 (57)		5.91 b	4.19 b	5.47 b	15.58 b
	F값		6.39**	6.17**	6.12**	10.44***

독립변수		생활만족도			
		가족생활만족	농업생활만족	여가생활만족	전 체
주택 건축 년 수	10년 미만 (78)	6.77 a	5.13 a	6.05	17.89 a
	10 ~ 19년 (46)	6.21 b	4.41 b	5.60	16.13 b
	20년 이상 (151)	6.33 ab	4.39 b	6.13	16.85 b
	F값	2.37	2.09	2.63	3.19*
R ²		.14***	.15***	.10*	.17***

* P < 0.5, ** P < 0.01, *** P < 0.001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전체 생활만족에는 주부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증가하고,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가장 만족하고 수가 많아질수록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연간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고,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핵가족이 확대가족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주택의 건축된 년수에 따라서는 건축된지 10년 미만일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가정생활만족에서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높았다. 연간소득 수준과 가족형태, 주택건축년수에 따라서도 가정생활만족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생활만족의 경우와 양상이 같다. 농업생활만족에서는 연간소득과 가족형태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가생활만족은 자녀가 많을수록 감소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의 주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환경변수들은 생활만족의 분산을 10-17% 설명해준다.

농촌생활변수로 채택된 주된 영농형태와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 농촌이 도시보다 덜 발전한 이유, 농촌거주년수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와 하위 집단간에 특히 유의한 급간을 지적해주는 다중범위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생활만족도에 대한 농촌생활변수의 GLM 다중분산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가족생활만족	농업생활만족	여가생활만족	전 체
주영농형태	논 농 사(173)	6.62 a	4.47 b	6.16 a	17.26 ab
	밭 농 사 (42)	5.79 b	4.39 b	6.02 ab	16.09 b
	축 산 (22)	6.55 a	5.68 a	6.18 a	18.41 a
	시설작물 (41)	6.42 ab	4.88 b	5.37 b	16.66 b
	F값	3.26*	2.45*	2.70*	2.41
농 업 가치인식	낮은 집단 (61)	6.07 b	4.03 b	6.13	16.23 b
	중간 집단(147)	6.48 ab	4.43 b	6.03	16.91 b
	높은 집단 (70)	6.76 a	5.53 a	5.93	18.21 a
	F값	2.00	12.59***	0.17	3.81*
농 촌 저발전이유	정부 정책(208)	6.29 a	4.51 a	5.88 a	16.66 b
	농민 내부 (70)	6.97 b	4.93 b	6.46 b	18.36 a
	F값	8.99**	3.40*	7.27**	11.39***
농 촌 거주년수	10년 미만 (24)	6.88	5.50 a	5.83	18.21
	10년~19년 (36)	6.31	4.64 b	6.00	16.94
	20년 이상(218)	6.44	4.52 b	6.05	16.99
	F값	1.06	2.20*	0.05	0.98
R ²		.09***	.16***	.06*	.10***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전체 생활만족에는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과 저발전이유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이 낮고 회의적일수록 생활만족은 감소하였고, 농촌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농민내적인 데 있기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시책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덜 만족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먼저 가정생활만족에서는 주된 영농형태가 논농사인 경우에 가장 높았고,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과 저발전이유는 전체생활만족의 양상과 같다. 농업생활만족에서는 주영농형태와 농업 가치인식, 저발전이유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양축농가의 만족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설작물 농가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에서 이들 농가가 전통적인 미곡농가보다 더 낮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가생활만족에서는 주영농형태와 저발전이유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양축농가와 논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의 만족이 보다 높고, 시설작물 농가는 가장 여가만족이 낮았다. 조사시기가 주로 논농사를 하는 농가는 농한기에 해당하므로 여가의 만족이 높고, 시설작물 농가는 농한기의 구분이 없고 다른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여가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여가만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농촌생활변수들은 생활만족의 분산을 6-16% 설명해준다.

시간변수와 생활만족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 시간변수와 영역별 생활만족간의 상관관계

생활만족 \ 시간	수면시간	식사·세면시간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가정생활만족	-.09	.17**	-.08	-.01	.14*
농업생활만족	-.16**	-.01	.01	.02	.03
여가생활만족	-.07	.06	-.21***	.05	.20***
전 체	-.14*	.09	-.12*	.03	.16**

* P < 0.5, ** P < 0.01, *** P < 0.001

전체 생활만족은 수면시간, 농업노동시간과 부적상관을 가지고, 여가시간과는 정적상관을 가졌다. 가정생활만족은 식사, 세면시간, 여가시간과 정적상관을 가지며, 여가생활만족은 수면, 농업노동시간과는 부적관련을 가지고 여가시간과는 정적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변수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생활만족에 대한 시간변수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가정생활	농업생활	여가생활	전 체
수면시간		-.04**		-.08**
식사·세면시간	.06**			
농업노동시간			-.02***	
여가시간	.01*			.03**
상 수	5.28	6.63	6.44	19.89
R ²	.05	.03	.05	.05

* P < 0.5, ** P < 0.01, *** P < 0.001 : 회귀계수(b값: estimates)

서로의 영향력을 통계할 때 전체생활만족은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감소하고 여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증가하였다. 가정생활만족은 식사와 세면,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증가하였다. 농업생활만족은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감소하였고, 여가생활만족은 농업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있게 나타난 시간변수들은 생활만족의 분산을 3-5% 설명해준다.

V. 요약 및 결론

1.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에서는 대다수의 부인이 자식대까지 농업을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신농사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농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정부정책은 농업실정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농민여론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2.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에서는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중간수준이나, 농업생활은 불만족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농사일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문항에서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다. 가정과 농업, 여가생활만족과 전체 생활만족간에는 모두 비슷한 정적상관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도 전체 생활만족에는 가정생활만족이 가장 높은 관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여가생활만족, 농업생활만족 순이었다.
3. 가정환경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볼 때 전체 생활만족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가장 만족하고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고,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핵가족이 확대가족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주택의 건축된 년수에 따라서는 건축된지 10년 미만일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가정생활만족에서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높았다. 연간소득 수준과 가족형태, 주택건축년수에 따라라도 가정생활만족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생활만족의 경우와 양상이 같다. 농업생활만족에서는 연간소득과 가족형태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가생활만족은 자녀가 많을수록 감소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의 주부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농촌생활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면 전체 생활만족은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이 낮고 회의적일수록 감소하였고, 농촌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농민내적인 데 있기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시책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더 낮았다. 가정생활만족에서는 주된 영농형태가 논농사인 경우에 가장 높았고,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과 저발전이유는 전체생활만족의 양상과 같다. 농업생활만족은 양축농가의 부인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설작물 농가로 나타났다. 여가생활만족에서는 양축농가와 논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의 부인이 보다 높고, 시설작물 농가는 여가만족이 가장 낮았다.
5. 전체생활만족은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감소하고 여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증가하였다. 가정

생활만족은 식사와 세면,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증가하였다. 농업생활만족은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감소하였고, 여가생활만족은 농업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감소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기초로 몇가지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남지역 농촌 부인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며, 생활만족수준은 낮게 나타났는데, 정부차원의 정책적배려와 다각적 복지대책 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대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해왔던 획일적이고 외부적, 일시적인 사업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고, 농정에 대한 가치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사일에 대한 댓가에서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것을 볼 때 도시근로자 수준의 노동 댓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이종곡가제와 같은 실효성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2. 높은 소득은 농촌 부인의 생활만족을 높이는 요인이므로 농가의 소득향상 방안을 강구한다. 즉 영세농가에서는 논농사 위주에서 고수익의 밭작물이나 시설작물로 전환하거나 농외취업으로 소득을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한다. 높은 교육수준도 생활만족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군민회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농촌부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나 생활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인 부인의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는데, 농촌가족은 확대가족비율과 노인부양지수가 도시보다 높다. 과중한 노동부담을 지고 있는 농촌부인은 노인부양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잔존한 농촌가족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노부와 독거노인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탁소스와 같은 시설과 노후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4. 주택 건축년수가 20년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된지 10년 미만일 때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된 주택에 대한 개량과 재건축이 필요하다.
5.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이 낮고 부정적일수록 생활만족이 낮고, 농촌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농민 자신에게보다 정부정책때문이라고 인식할 때 생활만족이 낮았는데, 우선은 농사일에 대한 가치감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정책적으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민 자신부터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 지양하고, 외적인 데만 책임을 두기보다는 농민 스스로 의식을 전환하고 경쟁력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주된 영농형태에서 양축농가나 시설작물 농가의 경우는 다른 농가보다 농업생활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생활만족수준에서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농업생활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같은 영농유형을 더 확산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7. 농촌 부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면시간은 보다 줄이고, 여가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특히 가정생활만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보다 여유있게 가지고, 목욕,세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김경동, 이흥구, 신도철(1976).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기념논총.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2. 김동일, 심재용, 유철인(1982).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사회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8.
3. 김인숙(1992). 한국농가의 생활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I).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3(4):1-4.
4. 김인숙, 최은숙(1993).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생활의 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83-97.
5. 김일철, 김태현, 김홍주(1994).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 서울대학교출판부.
6. 김태호(1994). 농촌사회문제론. 농림수산정보센터.
7. 김혜경, 문수재, 문숙재, 윤정숙, 이영(1990). 농가생활연구. 신광출판사.
8. 김화자, 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155-170.
9.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70-1996.
10. 농촌진흥청(1994). 농촌사회지표.
11. 보건복지부(1997). 도시와 농어촌간 사망률 비교.
12. 서광희, 조병은(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97-120.
13. 송병국(1987). 농촌성인의 생활만족도와 그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안옥희, 박인전, 최선남(1994). 청송지역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5(2):159-168.
15.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111-127.
16.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임정빈, 이종숙(1989). 확대기가정부부의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119-132.
18. 임정빈(1990). 농촌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농촌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4):135-154.
19.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156-169.
20. 조미환(199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조완규(1993).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농촌발전연구소 논총 18:63-76.
22. 최은숙(1981). 농가의 질적생활 진단을 위한 지표의 측정조사연구. 농촌진흥청.
23. 최은숙, 김인숙(1990).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87-100.
24. 최은숙, 한경혜, 박양자(1992). 한국농촌의 생활의 질 지표개발 및 진단-지역개발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
25. 통계청(각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15 한국가정과학회지 1(1): 66-80, 1998

26. 한경미(1995).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47-57.
27. 한경미(1997). 전남지역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의식 및 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6):111-125.
28. 한경혜(1980). 농가의 생활의 질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홍숙자(1990). LA거주 한국이민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과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57-170.
30. Berry, R., William, F.(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07-116.
31. Campbell, A., Converse, P.E., Rodgers, W.L.(1976).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32. Hafstrom, L.L., Dunsing, M.M.(1973).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119-132.